

# 『훈민정음』의 모음\*

이진호\*\*

## I. 머리말

국어 음운론 연구사에서 중세 국어 모음론이 차지하는 위상은 각별하다. 국어 연구에서 국어 음운론이 가장 돋보이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받던 시기에 그 공의 가장 큰 몫은 중세 국어 모음론과 관련된 업적으로 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중세 국어 모음론은 공시적 연구 대상으로서 현대 국어 모음과의 차이점을 밝힌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지만 통시적 연구 대상으로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모음 체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중세 국어 모음론이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음에 비해 모음은 변화 과정에서 훨씬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 역시 더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초창기 국어 연구에 영향을 준 유럽 구조주의 음운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자음보다 모음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언어 내적 측면이나 이론적 측면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훈민정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훈민정음』에 서술되어 있는 중성자의 창제와 관련된 내용은 중세 국어 모음론을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sup>1)</sup>

---

\*이 논문은 2016년 국립한글박물관이 기획한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다듬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후술하겠지만 중세 국어 모음론을 다룰 때 『훈민정음』의 서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

이 글은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다루는 일환으로 모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이라는 개념 대신 ‘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둘은 관련은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sup>2)</sup> 한편 『훈민정음』에는 모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모음들의 구체적인 쓰임은 15세기 문헌에 나오는 국어를 대상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역시 『훈민정음』의 모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중세 국어의 모음론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연구사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정밀하게 살핀 논의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개별 연구 업적의 내용이나 의의를 나열하는 것은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의의를 둘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중세 국어 모음론에 대한 성과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다섯 가지 하위 주제로 이루어진다. 우선 2장에서는 『훈민정음』에 반영된 모음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중세 국어, 좁게는 15세기 국어의 모음론에서 『훈민정음』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핀다. 4장에서는 중세 국어 모음의 음가를 단모음과 중모음으로 나누어 다룬다. 모음의 음가는 모음론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야 하는 내용이다. 5장에서는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음 체계에 대해 검토한다.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는 수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주제이다. 6장에서는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해 검토한다. 모음 조화, 반모음화 등에 있어 어떤 쟁점과 과제가 있는지를 고

---

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 2) 중성은 음절의 구조와 관련되지만 모음은 음절 구조와 무관하다. 그래서 중성은 초성, 중성과 대등한 관계임에 비해 모음은 자음이나 반모음과 대등한 관계이다. 또한 모음이 아닌 자음이 중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에서는 중성과 모음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찰하기로 한다.

## II. 『훈민정음』에 반영된 모음

중세 국어 모음론에서 『훈민정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훈민정음』의 곳곳에는 당시 국어의 모음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훈민정음』의 구성에 따라 모음에 대한 언급들을 구체적으로 살펴하기로 한다. 우선 『훈민정음』의 「예의」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중성자의 음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 (1) ·如吞字中聲 一如卽字中聲 | 如侵字中聲 ㄴ如洪字中聲 | 如單字中聲 ㄷ如君字中聲 | 如業字中聲 ㄹ如欲字中聲 | 如穰字中聲 ㅁ如戍字中聲 | 如警字中聲  
(이상은 「예의」에서 발췌)

(1)은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든 글자들이 어떤 음을 나타내는지를 한자(漢字)로써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1)을 통해 단모음의 음가가 어떤 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각 한자의 음이 그 당시 어떠한지가 먼저 밝혀져 있어야 한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제자해」에는 중세 국어의 모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 (2) ㄱ. 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 形之圓象乎天也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開於丑也 形之平象乎地也 | 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 形之立象乎人也  
 ㄴ. ㄴ與·同而口蹙其形則·與一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 | ㄷ與·同而口張其形則 | ㄷ與·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ㄹ與一同而口蹙其形則一與·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 | ㄹ與一同而口張其形則·與 | 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ㄷ. ㄴ與·同而起於 | ㄷ與·同而起於 | ㄹ與·同而起於 | ㄷ與·同而起於 |  
(이상은 「제자해」에서 발췌)

(2)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중성자의 창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모음의 조음

적 특징, 음운론적 분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모음에 대한 설명 중 그 중요성에 있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의 활용도 역시 (2)가 가장 높다. 특히 ‘舌縮, 口蹙, 口張’ 등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중세 국어 모음론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에서 분류한 모음 부류는 모음 체계와 관련하여 기본적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sup>3)</sup>

(2)는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ㄱ)은 기본자, (2ㄴ)은 초출자, (2ㄷ)은 재출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중성자의 창제 순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ㄴ, ㄷ)에 제시된 중성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중성자와의 대비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2ㄴ)의 초출자는 기본자와의 대비, (2ㄷ)의 재출자는 초출자와의 대비를 통해 음운론적 특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ㅚ, ㅟ, ㅢ, ㅤ’가 왜 두 글자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글자로 간주되었는지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2ㄷ)의 설명에 따르면 ‘ㅚ, ㅟ, ㅢ, ㅤ’는 각각 ‘ㄱ, ㄷ, ㅌ, ㄴ’와 비교할 때 ‘起於 |’라는 소리의 특징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ㅚ, ㅟ, ㅢ, ㅤ’를 해석함에 있어 ‘ㄱ, ㄷ, ㅌ, ㄴ’에 반모음이 더 결합된 것이 아니고 ‘ㄱ, ㄷ, ㅌ, ㄴ’에 ‘起於 |’라는 음성적 특징이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ㅚ, ㅟ, ㅢ, ㅤ’는 ‘ㄱ, ㄷ, ㅌ, ㄴ’와 동일하게 하나의 글자로 다루어진다.<sup>4)</sup>

「중성해」에는 둘 이상의 중성자가 결합된 글자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3) 여기에 대해서는 모음 체계를 다루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기로 한다.

4) 이처럼 이중 모음을 단모음에 특정한 음성적 작용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은 안 확(19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 확(1923)에서는 ‘야, 여, 요, 유, 의, 예, 애’와 같은 이중 모음을 ‘구개화 모음’, ‘외, 위, 와, 워, 왜, 웨’와 같은 이중 모음을 ‘순화 모음’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중 모음들은 각각 단모음에 구개의 작용, 입술의 작용이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구개화 모음’이나 ‘순화 모음’을 둘 이상의 모음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태도에 대해 이중 모음을 두 음소의 복합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3)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十·**나**·**니**·**하**·**히**·**개**·**하**·**기**·**개**·**하**·**기**·**개**是也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나**·**니**·**하**·**기**是也 | 於深淺闊關之聲並能相隨者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이상은 「중성해」에서 발췌)

(3)에 따르면 중성자는 한 글자로 된 것, 둘 글자로 된 것, 세 글자로 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글자로 된 중성자 11개는 (2)에 이미 제시되었고 (3)은 두 글자로 된 중성자 10개와 세 글자로 된 중성자 4개가 제시되어 있다. 두 글자 이상으로 된 중성자는 (3)에 제시된 것 이외에 ‘**나**’, ‘**니**’, ‘**하**’, ‘**기**’가 더 있다. 또한 ‘**ㅣ**’는 여러 중성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3)에서는 그 이유가 ‘**ㅣ**’의 음성학적 특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4) · 一起 | 聲於國語無用 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기**之類  
 (이상은 「합자해」에서 발췌)

(4)는 「합자해」에서 모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그 당시 비표준적인 말, 즉 아동의 말이나 방언에 ‘**ㅣ**’, ‘**ㄱ**’와 같은 이중 모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ㅣ**’, ‘**ㄱ**’는 그 성격상 ‘**·**’, ‘**ㅡ**’에 ‘起於**ㅣ**’라는 음성적 특징이 더해진 것이므로 (2ㄷ)의 재출자들이 가리키는 모음들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에는 다양한 부분에 당시의 모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설명의 구체성이나 명확성, 모음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언급은 「제자해」에서 주로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제자해」의 내용은 대부분 중성자 11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11자에 속하지 않는 모음자가 가리키는 중모음들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에만 의지해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문헌의 표기를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 III. 『훈민정음』과 중세 국어 모음론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에는 모음자 창제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의 모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내용을 수용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첫째, ‘사실’과 ‘해석’의 구분 문제이다. 『훈민정음』은 15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sup>5)</sup> 그런데 내용의 성격상 『훈민정음』에는 사실과 해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어떤 내용이 ‘사실’이거나 그에 가깝다면 이것은 그대로 수용해야 하겠지만 ‘해석’에 가깝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내용일 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sup>6)</sup>

예를 들어 모음의 음가를 설명하는 부분은 관찰의 결과이므로 ‘사실’에 좀 더 가깝지만 모음들의 대립 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오히려 ‘해석’에 가깝다. 이럴 경우 『훈민정음』에 언급된 모음들의 대립은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 자체가 고정불변의 진실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훈민정음』의 내용을 모두 확고한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여러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의 내용을 현대 언어학의 틀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범하는 ‘현대적 편견’의 오류도 문제이지만 『훈민정음』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만 인정함으로써 범할 수 있는 오류도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훈민정음』의 내용이라도 ‘해석’에 더 가깝다면 그것은 유일한 설명 도구는 아니며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훈민정음』에 나오는 술어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에 근거한 중세 국어 모음론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2)에 나오는 ‘舌縮, 口蹙, 口張’ 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과 현대 언어학의 개념 사이에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는 크게 (5)와 (6)의 둘로 나눌 수 있다.

5) 음소 문자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언어의 음소 분석을 비롯한 음운론적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 문자 창제의 결과를 통해 중세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주로 문자 창제의 우수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문자 창제에 앞서 이루어진 음운론적 분석 결과 역시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물론 ‘사실’인지 ‘해석’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 (5) 『훈민정음』의 개념이 현대 언어학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6) 『훈민정음』의 개념이 현대 언어학에 존재하는 경우
- ㄱ. 개념이 일대일로 대응하며 그 외연이 일치하는 경우
  - ㄴ. 개념이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그 외연이 다른 경우
  - ㄷ. 개념이 다대일로 대응하는 경우

(5)는 말 그대로 현대 언어학의 그 어느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 『훈민정음』에 나오는 경우이다. (6)은 현대 언어학의 개념과 대응하는 경우이지만 이 역시 몇 가지 하위 구분이 필요하다. (6ㄱ)과 같이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고 (6ㄴ)과 같이 동일한 개념이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거나 또는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개념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훈민정음』의 어떤 개념이 (5)와 (6ㄱ~ㄷ)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전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훈민정음』의 개념을 성급하게 현대적 관점으로 치환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5)를 주로 활용하지만 그럴 경우 『훈민정음』에 나오는 내용 이외에는 그 개념을 구체화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up>7)</sup> (6)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적 해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6ㄱ~ㄷ)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설축’의 현대적 해석이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설축’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해석 과정에서 (5), (6)의 경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개념들은 현대적 편견을 배제하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구체적 특성을 밝혀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제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문자와 음운의 구별 문제이다. 앞서 살핀 두 가지 문제에 비해 이것은 매우 자명한 문제이다. 『훈민정음』에는 문자에 대한 내용과 음운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세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에서는 당연히

7)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한글을 창제하는 데에도 많이 참고한 성운학 이론을 통해 『훈민정음』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다만 『훈민정음』의 개념을 성운학의 내용과 결부 지으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편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음운에 대한 내용이 주된 고려 대상이 되며, 문자에 대한 내용은 참고 대상이 될 뿐이다. 문자에 대한 내용을 음운에 대한 내용으로 오해하면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에 따르면 ‘ㅑ’는 하나의 단위이고 ‘ㅓ’는 ‘ㅑ’와 ‘ㅣ’가 합쳐진 두 개의 단위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의 차원에서만 성립될 뿐이다. 음운의 차원에서 본다면 ‘ㅑ’도 두 개의 소리로 이루어졌고 ‘ㅓ’도 두 개의 소리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문자와 음운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ㅑ, ㅓ, ㅕ, ㅗ, ㅛ’의 인정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훈민정음』에 따르면 ‘ㅑ, ㅓ, ㅕ, ㅗ, ㅛ’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문자의 차원에 국한된다. 음운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중모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sup>8)</sup>

#### IV. 중세 국어 모음의 음가

중세 국어와 같이 음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음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들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의 음가를 고찰하는 데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방언을 제외하면 현대 국어에 사라져 버린 ‘·’가 중세 국어 시기에 어떤 음가를 지녔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모음들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sup>9)</sup> ‘·’ 음가론에 채택한 방법들은 다른 모음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중세 국어 모음의 음가 추정 방안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10)</sup>

8) ‘ㅑ, ㅓ, ㅕ, ㅗ, ㅛ’는 설명 존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음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4.2.2.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9) 제주도 방언에 ‘·’에 대응하는 특이한 단모음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도 방언의 해당 모음 음가가 곧 중세 국어 ‘·’의 음가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제주도 방언에서 ‘·’에 해당하는 모음의 음가가 역사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 (7)은 이진호(2013)에서 정리한 ‘·’의 음가 추정 방안 중 다른 모음에도 적용 가



- (7) ㄱ. 『훈민정음』의 내용을 통한 음가 추정  
 ㄴ. 『사성통고』의 「범례」 내용을 통한 음가 추정  
 ㄷ. 한자음의 비교를 통한 음가 추정  
 ㄹ. 국어의 외국 문자 전사 자료를 통한 음가 추정  
 ㄴ. 외국어의 한글 전사 자료를 통한 음가 추정  
 ㅂ. 현대 방언을 통한 음가 추정  
 ㅅ. 후대의 변화 양상을 통한 음가 추정  
 ㅇ.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통한 음가 추정  
 ㅈ. 모음들 사이의 혼기를 통한 음가 추정  
 ㅊ. 차자 표기의 분석을 통한 음가 추정  
 ㅋ. 모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음가 추정  
 ㅌ. 모음자들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음가 추정  
 ㅍ. 관련 언어와의 비교를 통한 음가 추정

## 1. 단모음의 음가

단모음의 음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단모음의 목록이다. 현재는 중세 국어의 단모음 목록에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20세기 전반기만 하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중세 국어 단모음 목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를 단모음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ㅘ, ㅙ, ㅚ, ㅛ’와 같이 ‘ㅣ’를 제외한 모음들이 단모음이었는가의 여부이다. ‘·’는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ㅘ, ㅙ, ㅚ, ㅛ’는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이었다고 해서 이전에도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쟁점이 되었다.

‘·’의 경우 주시경이 ‘ㅣ+·’를 나타내었다고 해석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단모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중세 국어 단모음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세 국어의 ‘ㅘ, ㅙ, ㅚ, ㅛ’가 단모음이었는지의 여부는 ‘·’보다는 좀 더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는 단모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up>11)</sup> 河野六郎(1945)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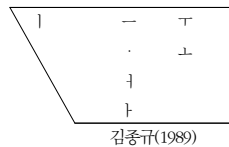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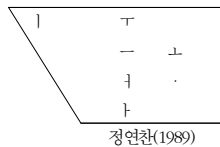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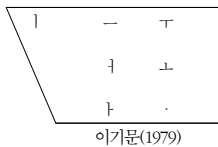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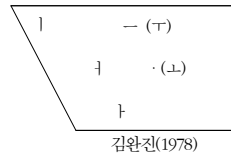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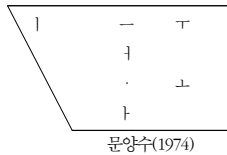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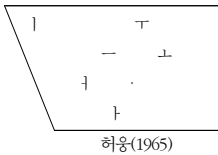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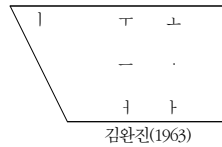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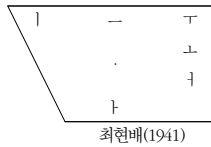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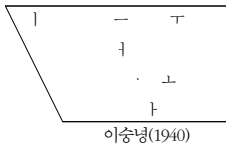
능한 것들을 추려서 일부를 수정한 결과이다.

11) 중세 국어의 ‘ㅘ, ㅙ, ㅚ, ㅛ’가 이중 모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소위

시되었고 이후 이승녕(1949ㄴ, 1954ㄴ), 허웅(1951)을 거치면서 확고한 정설로 굳어졌다.<sup>12)</sup> 여기에는 문자 구성의 해석, 음운 현상의 관찰, 방언 자료의 활용, 외국 자료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 一, ㅏ, ㅑ, ㅓ, ㅕ, ㅗ’의 7개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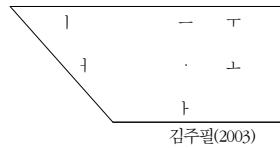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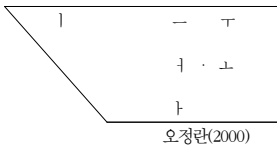
이러한 단모음들의 음가는 모음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중세 국어의 모음도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sup>13)</sup>

(8)



‘현대적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 12) 小倉進平도 1920년대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암시적으로 언급했으나 명확한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小倉進平의 암시는 그의 제자인 河野六郎을 통해 구체적 주장으로 정리되었다.
- 13) 기존 논의의 모음도는 김무림(1989), 김영진(1991), 김성규(2009)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논의에 나오는 것 이외에도 몇몇 모음도를 더 추가하였다.



(8)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모음도는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sup>14)</sup> 모음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혀의 높낮이를 3단으로 할지 4단으로 할지의 문제, ‘·’의 위치 문제, ‘ㅣ’의 위치 문제 등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논의에 따라서는 중세 국어 단모음의 조음 영역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국어 모음의 조음 영역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세 국어의 모음 영역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제 (8)의 모음도를 고려하면서 각각의 단모음별로 음가와 관련된 이견들을 살피기로 한다. 중세 국어 단모음 중에서 그 음가에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 이견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만 다를 뿐 모두 이견이 존재한다.<sup>15)</sup>

우선 ‘·’는 중세 국어 모음의 음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는 중세 국어 단모음 중 유일하게 소실되어 현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중세 국어 모음의 대립 관계, 현대 국어로의 변화 과정, 모음 추이에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그 음가론이 오래 전부터 쟁점으로 부상했다.<sup>16)</sup> ‘·’의 음가는 후설에서 중설, 저모음에서 중고모음에 이르는 넓은 영역 안에서 논의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sup>17)</sup> 음성

14) 모음도에 표시된 단모음의 위치는 원전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5) 단모음의 음가를 살피는 순서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중성자의 제자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그래서 기본자인 ‘·, ㅡ, ㅣ’를 순서대로 살피고 초출자인 ‘ㅓ, ㅗ, ㅜ, ㅛ’를 그 다음에 살핀다.

16) 특히 심악 이승녕 선생과 외솔 최현배 선생 사이에 벌어진 ‘·’의 음가 논쟁은 국어 연구의 논쟁사에 있어 대표적인 경우이면서도 상호 비난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17) 이진호(2013)에서 다소 간소화한 이견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

기호로 제시된 것만 해도 ‘ʌ, a, ɒ, ɔ, ə, e, ɜ’ 등에 이르며 음성 기호화 하지 않은 견해들도 여럿에 이른다. ‘·’의 음가론에서는 혀의 위치가 중요한데 후설 모음인지 중설 모음인지, 그리고 중모음인지 저모음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와의 음성적 간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 1단계 변화를 통해 ‘-’로 바뀌려면 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의 음가는 크게 둘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중설 평순 고모음인 ‘i’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고, 이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은 중모음 또는 중고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의 음가를 고려할 때에는 모음 추이나 ‘·’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 모음 추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중모음이나 중고모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i’는 단모음 중 음가에 대한 이견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모음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설 평순 고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일부 논의에서는 ‘i’의 음가와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문자상으로는 ‘i’가 하나이지만 발음상 두 종류의 ‘i’가 존재했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에 대응하는 ‘i’ 이외에 ‘i’의 이완 모음인 ‘iː’ 또는 중설 평순 고모음인 ‘iː’에 대응하는 ‘i’가 더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중세 국어에서 중성 모음으로 분류되는 ‘i’가 그 이전에는 두 모음의 합류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관련되어 있다.

‘ɔ’는 후설 원순 모음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 다만 혀의 높낮이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중모음 또는 중고모음으로 설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모음 ‘u’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모음 추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모음 추이가 중세 국어 이후에 있었다고 이해하는 논의에서는 중세 국어 ‘ɔ’의 음가를 ‘u’로 규정한다.

‘a’는 이견이 가장 적은 모음 중 하나이다. ‘a’는 평순 저모음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혀의 전후 위치에 있어 중설로 보는 입장과 후설로 보는 입장이 구분된다. 중설 모음으로 보는 입장이 좀 더 많은

편이다. 현대 국어의 ‘ㅏ’도 음성적으로는 중설 모음에 더 가깝다. 다만 음운론적 대립의 측면에서는 후설 모음으로 분류된다.

‘ㅓ’는 그 음가와 관련된 이견이 ‘ㅑ’와 무관하지 않다. ‘ㅑ’의 음가에 따라 ‘ㅓ’의 음가가 영향을 받는다. ‘ㅓ’가 원순 고모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중설에 해당하는 ‘ㅕ’라고 보는 입장과 후설에 해당하는 ‘ㅛ’라고 보는 입장이 나뉜다. 대체로 ‘ㅑ’의 음가를 ‘ㅛ’로 보는 경우에는 ‘ㅓ’의 음가를 ‘ㅕ’로 보고, ‘ㅑ’의 음가를 ‘ㅛ’로 보는 경우에는 ‘ㅓ’의 음가를 ‘ㅛ’로 본다.<sup>18)</sup> 다만 정연찬(1989)에서와 같이 ‘ㅓ’를 중설의 ‘ㅕ’로 보면서도 후설 원순 고모음에 해당하는 ‘ㅛ’ 자리는 비워 두고 ‘ㅑ’를 ‘ㅛ’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기는 한다.<sup>19)</sup>

‘ㅓ’는 ‘ㅑ’ 다음으로 그 음가에 이견이 많은 모음이다. ‘ㅓ’의 음가는 현대 국어의 경우에도 이견이 많고 실제로 음성적 실현도 복잡한 편이다. 현대 국어 ‘ㅓ’의 음성 전사에 동원되는 음성 기호만 해도 ‘i, ʊ, ə, ʏ, ʌ, ɔ, 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음성적 특징 역시 후설에서 중설, 중모음에서 고모음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다. 이러한 ‘ㅓ’의 변이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실현에는 장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sup>20)</sup>

중세 국어의 ‘ㅓ’ 역시 음성적 실현이 단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음의 음운사 연구에서 ‘ㅓ’는 전설 모음에 가까웠는데 이것이 점차 후설화되었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후설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이다. 앞서 (8)의 모음도에서 보듯 ‘ㅓ’를 전설 모음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중설 모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설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국어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설에 좀 더 치우쳤다고 보아야 할지 모른다. ‘ㅓ’의 음가는 모음 추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ㅑ’의 소멸 이후 모음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중요

18) ‘ㅓ’를 중설 원순 고모음인 ‘ㅕ’, ‘ㅑ’를 후설 원순 고모음인 ‘ㅛ’로 분류하는 것은 모음 추이가 일어나기 이전의 모음 체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19) 정연찬(1989)의 모음 체계는 (8)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20) 그러나 梅田博之(1983)과 같이 ‘ㅓ’가 실현되는 두 부류의 음성을 음장에 따른 변이음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단모음으로 분석하는 입장도 없지는 않다.

한 의미가 있다.

## 2. 중모음의 음가

### 1) 이중 모음의 음가

중세 국어 이중 모음의 음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중 모음의 정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향 이중 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중 모음의 정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주로 이중 모음을 이루는 음소의 종류와 관련된 논란인데 특히 반모음이 그 중심에 있다. 반모음이 포함된 것을 이중 모음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어 크게 세 가지 태도가 구분된다.

- (9) ㄱ.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진다.
- ㄴ.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 ㄷ.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9ㄱ)은 전통적인 정의로서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에 충실한 것이다. 이중 모음은 말 그대로 단모음이 이중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반모음이 포함된 것은 이중 모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9ㄴ)은 이중 모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반모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ㄷ)은 현실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9ㄱ)과 (9ㄴ)은 이중 모음이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모음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구성 요소의 성격에서 배타적 관계에 있다. (9ㄱ)과 (9ㄴ)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취하는 순간 다른 한 쪽은 이중 모음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sup>21)</sup> 그런데 (9ㄱ)의 명분만 따라서 (9ㄴ)을 이중 모음 목록에서 모두 배제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sup>22)</sup> (9ㄷ)은 (9ㄱ, ㄴ)을 모두 포괄하는 절충적

태도로서 (9ㄷ)에 따르면 이중 모음은 구성 음소의 종류와 무관하게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모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9ㄷ)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9ㄱ)이나 (9ㄴ)을 택하면 지금까지 이중 모음으로 다루어져 오던 것 중 상당수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욱이 중세 국어의 ‘ㅘ, ㅙ, ㅚ, ㅛ, ㅜ’ 등은 음운론적 해석에서 이견이 있어서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고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결합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9ㄱ) 또는 (9ㄴ)을 택할 경우 이견의 내용에 따라 이중 모음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sup>23)</sup>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중 모음의 정의에 충실하자면 절충안인 (9ㄷ)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된다.<sup>24)</sup>

다음으로 하향 이중 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세 국어의 ‘ㅘ, ㅙ, ㅚ, ㅛ, ㅜ’와 같은 모음들은 현재 두 가지 음운론적 해석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 (10) ㄱ. ‘단모음+반모음 j’로 해석하는 방법  
 ㄴ. ‘단모음+단모음 i’로 해석하는 방법

- 
- 21) 특히 (9ㄱ)의 입장을 취하는 논의에서는 (9ㄴ)에 속하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에 대해 이중 모음과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이진호(2017)에 따르면 (9ㄴ)에 대해서는 ‘복모음, 음군, 연음(連音), 이은 소리, 거듭 음운, 겹홀소리, 반모음 복합음, 복합음, 겹모음적인 것, 준겹모음, 준 이중 모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들을 보면 이중 모음에 준한다든지 이중 모음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이중 모음은 아니라도 그 성격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22) 실제로 (9ㄱ)을 따르면 현대 국어의 경우 이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i’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 다만 언어 유형론에서는 (9ㄱ)과 같은 입장에서 이중 모음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 23) 가령 (9ㄱ)의 관점에서 후술할 (10ㄱ)의 해석을 취하면 중세 국어의 ‘ㅘ, ㅙ, ㅚ, ㅛ, ㅜ’는 모두 이중 모음이 되지 못한다. (9ㄴ)의 관점에서 (10ㄴ)의 해석을 취해도 마찬가지이다.
- 24) (9ㄷ)을 취하면서도 (9ㄱ)의 구성으로 된 이중 모음과 (9ㄴ)의 구성으로 된 이중 모음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심의린(1949)에서는 이중 모음을 중모음(重母音)과 합모음(合母音)으로 나눈 후 (9ㄱ)과 같은 이중 모음은 중모음, (9ㄴ)과 같은 이중 모음은 합모음이라고 보고 있다.

(10ㄱ)에 따르면 ‘ㄱ, ㅋ, ㆁ, ㆁ, ㆁ’는 모두 반모음으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 되지만 (10ㄴ)에 따르면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 된다. (10ㄱ)과 (10ㄴ)의 차이는 이중 모음의 분류에도 영향을 준다. (10ㄱ)에서는 ‘ㄱ, ㅋ, ㆁ, ㆁ, ㆁ’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에 후행하므로 하향 이중 모음으로 분류되지만, (10ㄴ)에서는 ‘ㄱ, ㅋ, ㆁ, ㆁ, ㆁ’ 중 ‘ㄱ, ㅋ, ㆁ’만 하향 이중 모음으로 분류되고 ‘ㆁ, ㆁ’는 수평 이중 모음으로 분류된다.<sup>25)</sup>

(10ㄱ) 또는 (10ㄴ)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sup>26)</sup> 현 재로서는 이러한 근거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양자택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10ㄱ) 또는 (10ㄴ)의 차이는 적어도 이중 모음의 음가와 관련해서는 이중 모음의 마지막 음소가 무엇인지에 있어서만 구별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편의상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10ㄱ)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sup>27)</sup>

한편 이중 모음의 음가를 살피려면 이중 모음의 목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목록 확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중 모음의 인정 여부이다.

25) 이중 모음은 음절 주음과 부음의 선후 위치에 따라 상향 이중 모음, 하향 이중 모음, 수평 이중 모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향 이중 모음은 음절 주음이 뒤에 오고, 하향 이중 모음은 반대로 음절 주음이 앞에 온다. 수평 이중 모음은 음절 주음과 부음을 정하기 어려운 이중 모음으로서 ‘중간적 이중 모음, 횡진적 이중 모음, 평판 이중 모음, 평행적 겹모음, 부동 이중 모음’ 등으로도 불린다. ‘ㄱ, ㅋ, ㆁ, ㆁ, ㆁ’를 (10ㄴ)과 같이 분석하면 이들은 모두 고모음 ‘ㅣ’로 끝난다. ‘ㄱ, ㅋ, ㆁ’의 경우 고모음보다 개구도(공명도)가 더 큰 모음이 ‘ㅣ’보다 앞에 오므로 음절 주음이 음절 부음에 선행하는 하향 이중 모음이 된다. 그러나 ‘ㆁ, ㆁ’의 경우 ‘ㅣ’에 선행하는 ‘ㄷ, ㅌ’와 ‘ㅣ’의 개구도가 동일하여 음절 주음과 부음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하향 이중 모음이 되지 못하고 수평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이다.

26)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논의인 김소영(2009)에 잘 정리되어 있다.

27) 따라서 중세 국어의 삼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도 모두 반모음 ‘ㅣ’로 끝난다고 기술하게 된다. 반복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이 글에서만은 편의상의 조치임을 밝혀 둔다.



- (11) ㄱ. jɪ, jʌ, jɛ, wʌ, wi, wɪ  
 ㄴ. ij

(11ㄱ)은 반모음이 선행하는 상향 이중 모음이고 (11ㄴ)은 반모음으로 끝나는 하향 이중 모음이다. 주로 상향 이중 모음의 목록에서 이견이 많다. (11)에 제시된 이중 모음들은 모두 각각에 대응하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sup>28)</sup> 따라서 문헌 표기만으로는 (11)의 이중 모음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음운 현상이나 음운 변화의 적용 양상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령 (11ㄱ)의 ‘wʌ, wi’는 ‘ㄹ, ㅄ’가 각각 ‘오, 우’로 바뀌는 중간 단계에 존재했으리라 추정한다든지, ‘jʌ’는 모음 조화의 예외를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제기되었다.<sup>29)</sup> 또한 ‘wi, ij’는 ‘비’라는 음절의 특이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으며, ‘ij’는 ‘ㄱ’ 약화를 근거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 근거를 바탕으로 (11)을 이중 모음 목록에 추가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중 모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2) ㄱ. ㅏ, ㅑ, ㅓ, ㅕ  
 ㄴ.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ㄷ. ㅜ, ㅠ

(12ㄱ)은 반모음 ‘j’로 시작하고 (12ㄴ)은 반모음 ‘j’로 끝난다. (12ㄷ)은 ‘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다. ‘w’로 끝나는 이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의 수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28) 공식적인 증성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jʌ’와 ‘jɛ’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ㄹ’과 ‘ㄱ’이라는 표기가 『훈민정음』의 「합자해」에 나오기는 한다.

29) 잘 알려져 있다시피 ‘jʌ, jɛ’는 훈민정음의 합자해에서 아동의 말이나 지역 방언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중 모음의 음가를 살피기 위해 여러 주제들을 검토했다. 그런데 정작 이중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중 모음은 두 음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두 음소의 음가를 합치면 곧 그것이 이중 모음의 음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반모음의 음가는 자명하므로 중세 국어 이중 모음의 음가는 반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단모음의 음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최근 김현(2015)에서는 중세 국어 ‘ㄱ’에 대해 단모음 ‘ㄱ’과 달리 이중 모음 ‘ㄱ’에 포함된 ‘ㄱ’은 좀 더 전설에 가까운 위치에서 실현되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ㄱ’의 경우 ‘ㄱ’에 선행하는 ‘j’로 인해 ‘ㄱ’의 중설화가 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sup>30)</sup> 이것은 이중 모음의 음가가 단순히 구성 음소의 음가를 합쳐 놓은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김현(2015)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ㄱ’에는 예전 시기 ‘ㄱ’의 음가가 화석으로 간직되어 있는 셈이 된다. 즉 단모음이거나 또는 ‘ㄱ, ㄱ’ 등에 포함된 ‘ㄱ’은 중설화를 통해 새로운 음가를 지니지만 ‘ㄱ’의 ‘ㄱ’은 그 이전 시기의 음가를 그대로 간직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 2) 삼중 모음의 음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중모음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로 중세 국어에는 삼중 모음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31)</sup> 중세 국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모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3) ㄱ, ㅃ, ㅅ, ㅈ, ㅊ, ㅋ  
 ㄴ, ㄷ, ㄹ

30) 4.1.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모음 ‘ㄱ’은 현대 국어와 달리 예전에는 전설 부근에서 발음되었으리라는 가설이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널리 퍼져 있다.

31) 현대 국어도 일부 방언 자료를 근거로 삼중 모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발음 단위로서의 삼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호(2017)를 참고할 수 있다.

(13ㄱ)은 ‘j’로 시작하는 삼중 모음이고 (13ㄴ)은 ‘w’로 시작하는 삼중 모음이다. 삼중 모음의 음가는 하향 이중 모음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향 이중 모음을 ‘단모음+j’로 해석하면 (13ㄱ)은 ‘j+단모음+j’의 음가를 지니고 (13ㄴ)은 ‘w+단모음+j’의 음가를 지닌다. 반면 하향 이중 모음을 ‘단모음+i’로 해석하면 (13ㄱ)은 ‘j+단모음+i’의 음가를 지니고 (13ㄴ)은 ‘w+단모음+i’의 음가를 지닌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중 모음의 정의에 따라 삼중 모음의 설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9ㄱ)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삼중 모음도 단모음 3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반모음이 맨 앞에 오는 (13)의 모음들은 모두 삼중 모음이 되지 못한다.<sup>32)</sup> (9ㄴ) 또는 (9ㄷ)과 같이 반모음이 포함된 것도 중모음으로 인정할 때에만 (13)을 삼중 모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훈민정음』에는 ‘ㅍ, ㅑ, ㅓ, ㅕ’리는 중성자도 나온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ㅍ, ㅑ’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 두 개가 결합되었으므로 사중 모음이 되고, ‘ㅓ, ㅕ’는 여기에 반모음 ‘j’가 결합되었으므로 오중 모음이 된다.<sup>33)</sup> 그러나 ‘ㅍ, ㅑ’의 경우 재출자는 재출자끼리 합친다는 합자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두 개의 이중 모음이 결합되었다는 음운론적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언어 보편적으로도 사중 모음 이상의 중모음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중세 국어의 쓰임을 보아도 ‘ㅍ, ㅑ, ㅓ, ㅕ’와 같은 중모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중모음은 문자의 제자 차원에서만 존재하고 음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중모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4)</sup>

32) 극단적으로 (9ㄱ)과 같은 정의를 채택하면서 ‘ㅑ, ㅓ, ㅕ, ㅑ, ㅕ’를 (10ㄱ)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13)은 삼중 모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중 모음도 되지 못한다.

33) 임용기(2002)에서는 ‘ㅍ, ㅑ’를 전설 원순의 반모음 ‘u’로 시작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ㅍ, ㅑ’는 ‘u’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되고 ‘ㅓ, ㅕ’는 ‘u’로 시작해서 ‘j’로 끝나는 삼중 모음이 된다.

34) 음운론적으로 보더라도 ‘반모음+단모음+반모음+단모음’과 같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연속하여 반복되는 구성의 중모음은 인정하기 어렵다.

## V.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 1. 단모음 체계

단모음 체계란 단모음들이 맺고 있는 대립 관계의 총합이다. 단모음의 대립 관계는 단모음의 음가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단모음 체계는 단모음의 음가를 표시한 모음도와 관련이 있다.<sup>35)</sup> 그런데 모음도가 곧 모음 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36)</sup> 이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모음도는 모음의 음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음성학적 성격을 지니지만 모음 체계는 모음들의 대립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음운론적 성격을 지닌다. 논의에 따라서는 모음의 음성학적 체계와 음운론적 체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별은 모음도와 모음 체계의 차이와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둘째, 모음 체계에서의 차이와 모음도에서의 차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으’와 ‘우’는 모음 체계에서는 원순성에서만 구별되고 나머지 자질은 동일하지만 모음도에서는 원순성 이외에 혀의 전후 위치도 다르다. 게다가 모음도에서의 ‘으’와 ‘우’는 원순성 이외에 음성적인 실현 영역 또한 차이가 난다. 모음 체계와 모음도가 동일한 개념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셋째, 어떤 시기의 모음 체계는 그 당대의 모음도가 아닌 이전 시기의 모음도에 기반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모음들의 음가가 변해 버렸지만 대립 관계는 그 이전 시기의 것을 그대로 유

35) 중세 국어의 다양한 모음도는 4장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36) 다만 지금까지 제시된 모음도들은 음가를 기준으로 한 음성학적 성격을 가진 것과 대립 관계를 반영한 음운론적 성격을 가진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7) 예를 들어 김종규(2000)의 경우 ‘으’에 대해 음성학적 체계에서는 고모음이 아니지만 음운론적 체계에서는 고모음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곧 모음도에서의 ‘으’는 고모음이 아니지만 모음 체계에서는 고모음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지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의 합치 여부를 다루는 논의에서 종종 언급되었다.<sup>38)</sup> 이처럼 모음도와 모음 체계는 다른 개념이므로 모음 체계는 철저히 모음들의 대립에 기반하여 살펴야 한다.

중세 국어의 단모음 체계와 관련된 쟁점은 우선 『훈민정음』에서 규정한 모음들의 부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단모음을 일차적으로 ‘설축, 설소축, 설불축’의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훈민정음』의 이러한 분류 체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훈민정음』의 이러한 방식을 ‘사실’이 아닌 ‘해석’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훈민정음』의 단모음 분류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도 한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대다수 논의들이 이 문제에 있어 『훈민정음』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여기에 대한 쟁점이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인데, 향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의 ‘설축, 설소축, 설불축’ 부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 부류 사이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니는지에 있어서는 여러 입장이 나뉜다. ‘설축, 설소축, 설불축’은 말 그대로 대립하는 모음들의 부류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대립의 내용은 따로 살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설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sup>39)</sup>

- (14) ㄱ. 혀의 움츠림  
 ㄴ. 혀의 전후 위치  
 ㄷ. 구강에서의 좁힘점  
 ㄹ. 혀의 위치  
 ㅁ. 혀뿌리의 전진(Advanced Tongue Root, 이하 ATR)  
 ㅂ. 혀뿌리의 수축(Retracted Tongue Root, 이하 RTR)

38) 여기에 대해서는 6.1.의 모음 조화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39) ‘설축’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김무식(1993), 오정란(2000), 김영선(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스. 혀의 위치+개구도

(14)는 ‘설축’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 대표적인 몇몇 내용을 모은 것이다. (14)의 견해는 공통적으로 ‘설축’의 특성을 ‘혀’와 관련시키고 있다. 이것은 ‘설축’의 ‘설(舌)’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14ㄱ)은 ‘설축(舌縮)’을 『훈민정음』에 나오는 설명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견해와 구별된다. ‘설축’을 직역한 것이 (14ㄱ)이다. (14ㄱ)을 제외한 (14ㄴ~스)은 모두 ‘설축’을 현대 언어학의 개념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14ㄴ)은 혀의 움직임을 수평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견해와 차별적이다. (14ㄷ)은 혀 자체보다는 혀의 움직임으로 인해만 들어지는 좁힘점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4ㄹ, ㅂ)은 혀의 구체적인 부위, 즉 혀뿌리의 움직임을 중시한다는 점이 색다르다. (14스)은 (14ㄱ~ㅂ)과 달리 ‘설축’이 하나의 음성적 특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음성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점이 특징적이다.

(14)에 제시된 여러 견해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제시되었지만 매우 활발하게 언급되는 것은 (14ㄹ, ㅂ)이다. (14ㄹ, ㅂ)이 각광을 받게 된 배경에는 서구의 언어학에서 ‘[ATR]’이나 ‘[RTR]’과 같은 변별적 자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언어를 기술하기 시작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ATR]’과 ‘[RTR]’ 자질은 서로 동일한 특성을 다르게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하고 서로 관련은 되지만 별개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sup>40)</sup> 아무튼 언어학 이론의 발전으로 설축이 이러한 자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ATR]’이나 ‘[RTR]’이 변별적 자질로 작용하는 언어와 중세 국어는 모음 체계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좀 더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41)</sup>

40) 이 문제에 대해서는 Ko(2012)에서 다룬 바 있다. Ko(2012)에서는 ‘[ATR]’과 ‘[RTR]’에 대해 두 자질이 적용되는 언어의 종류, 모음 목록, 중성 모음의 종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자질이라고 보고 있다.

41) ‘[ATR]’이나 ‘[RTR]’에 의해 구분되는 모음쌍은 ‘i : i’, ‘e : e’, ‘u : u’, ‘o : o’ 등과

중세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는 ‘설축’에 대한 해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불축’ 계열을 제외한 ‘설축’과 ‘설소축’ 계열에는 여전히 구분이 필요한 단모음들이 존재한다. ‘설축’에 속하는 ‘·, ㅓ, ㅑ’, ‘설소축’에 속하는 ‘ㅛ, ㅜ, ㅛ’ 사이의 음운론적 대립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민정음』에서는 ‘구축(口臑)’과 ‘구장(口張)’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따르면 ‘ㅓ, ㅑ’는 ‘구축’이고 ‘ㅛ, ㅛ’는 ‘구장’이다. 그런데 구축과 구장의 해석도 단일하지는 않다.

- (15) ㄱ. 원순성  
 ㄴ. 개구도  
 ㄷ. 원순성+개구도  
 ㄹ. ‘구축’은 원순성, ‘구장’은 개구도

(15)를 보면 ‘구축, 구장’은 주로 원순성과 개구도라는 두 가지 음성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축과 구장이 각각 ‘으/으’와 ‘오/우’, ‘으/으’와 ‘아/어’를 구별하는 데 쓰이므로 원순성이나 개구도 이상의 다른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개념을 아우르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15ㄱ~ㄷ)은 ‘구축’과 ‘구장’이 동일한 음성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는 데 반해 (15ㄹ)은 ‘구축’과 ‘구장’이 서로 다

---

같이 전통적으로는 긴장성에 의해 구별되던 것들이다. 이 두 자질이 변별적 자질로 관여한다고 기술되는 언어들 중 상당수에서 이러한 모음들의 대립이 모음 체계에 나타난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단모음들은 이러한 구분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i : i’, ‘e : e’, ‘u : u’, ‘o : o’와 같은 대립쌍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축에 의해 대립되는 모음들의 대립쌍은 ‘ㅓ : ㅑ, ㅑ : ㅑ, · : ·-’와 같이 다른 언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세 국어의 단모음 목록은 ‘[ATR]’이나 ‘[RTR]’이 관여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향실(2000)에서 ‘[ATR]’에 의해 구분되는 모음들은 이 자질을 제외한 나머지 자질은 공통적인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 것 또한 같은 취지의 지적으로 볼 수 있다. ‘i : i’, ‘e : e’, ‘u : u’, ‘o : o’는 ‘[ATR]’을 제외한 나머지 자질 값이 동일하지만 국어의 경우 ‘ㅓ : ㅑ’, ‘ㅑ : ㅑ’, ‘· : ·-’는 ‘[ATR]’ 이외에 혀의 높낮이도 다른 것이다.

른 음성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15ㄱ~ㄷ)은 구축, 구장이 동일한 성격의 음성적 특징을 다분적으로 드러낸다는 입장이지만 (15ㄹ)은 구축과 구장이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15ㄱ, ㄴ, ㄹ)과 달리 (15ㄷ)은 ‘구축’과 ‘구장’이 두 가지의 음성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축, 구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과 더불어 ‘·, -’가 이 두 가지 자질에 있어 어떤 값을 가지는지도 문제로 남아 있다.

- (16) ㄱ. ‘·, -’는 ‘구축, 구장’의 두 가지 자질 값이 ‘-’이다.  
 ㄴ. ‘·, -’는 ‘구축, 구장’의 두 가지 자질 값과 무관하다.

『훈민정음』에서는 ‘·, -’를 설명할 때 ‘구축, 구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ㄱ, ㄴ, ㄷ, ㄹ’에 대해서만 구축, 구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문면만 가지고는 ‘·, -’가 ‘구축, 구장’에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ㄱ, ㄷ’가 구축이라거나 ‘ㄴ, ㄹ’가 구장이라는 설명은 ‘·, -’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16ㄱ)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여 ‘·, -’가 ‘구축, 구장’ 모두 ‘-’라고 해석한 것이다.<sup>42)</sup> 반면 『훈민정음』에서 ‘·, -’에 대해서는 ‘구축, 구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 설측에 의해 ‘·, -, ㄹ’가 먼저 구분되고 그 나머지 모음에 대해서만 ‘구축, 구장’이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할 경우에는 (16ㄴ)과 같은 태도가 나오게 된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쟁점화된 적은 없다. 다만 ‘구축, 구장’이 변별적 기능을 담당한다면 ‘·, -’도 이 자질에 대해 어떤

42) 이럴 경우 ‘구축, 구장’에 의해 ‘[+구축, -구장]’인 ‘ㄱ, ㄷ’, ‘[-구축, +구장]’인 ‘ㄴ, ㄹ’, ‘[-구축, -구장]’인 ‘·, -’가 구분된다. 만약 ‘구축, 구장’의 개념을 (12ㄱ)과 같이 원순성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훈민정음』에서 원순성에 따라 단모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송기중(1991)과 같이 원순성에 따라 ‘비원순(·, -, ㄹ), 반원순(ㄴ, ㄹ), 원순(ㄱ, ㄷ)’의 세 부류를 인정하는 논의도 없지는 않다. 또한 음성학에서는 평순 모음을 ‘spread’와 ‘neutral’의 둘로 세분하여 결과적으로 원순성에 따라 ‘round, spread, neutral’의 세 부류 모음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구축, 구장’이 이러한 구별을 나타내는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다.



값을 가지는지는 표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sup>43)</sup>

중세 국어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려면 단모음 체계를 기술할 변별적 자질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별적 자질의 종류, 변별적 자질의 계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변별적 자질의 종류에 있어 가장 단순하게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설축, 구축, 구장’ 자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 입장이 다수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지는 않다. ‘설축’이라는 자질에 의해서는 ‘설축, 설소축, 설불축’이라는 세 부류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위 다분 자질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 부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별적 자질이 필요하다. 김완진(1978)의 ‘[伸(extension)]’과 ‘[縮(retraction)]’이나 오정란(2000)의 ‘[ATR]’과 ‘[RTR]’은 설축에 의해 구별되는 세 부류를 두 개의 변별적 자질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 모음론에서는 자질들의 계층 문제도 간혹 언급되고 있다. 물론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변별적 자질의 계층도를 제안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중세 국어 모음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것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설축’이라는 특성과 ‘구축, 구장’이라는 특성이 서로 대등한 층위에 있지는 않다고 본 데에서 기인한다. 그 리하여 ‘설축’이 기본 자질로서 세 부류를 먼저 구별하고 ‘구축, 구장’은 일종의 부차적 자질로서 ‘설축’에서 동일한 부류 내에서만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물론 훈민정음의 ‘설축, 구축, 구장’과 무관하게 송기중(1991)에서와 같이 ‘원순성’ 자질을 일차적 자질로 하고 ‘개구도’ 자질은 이에 종속된다고 보는 방식의 계층화도 존재하고, 고성연(2010)의 ‘설정성 > 전설성 > 순음성 > 설근 후축[RTR]’과 같이 변별적 자질 각각의 위계를 정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다만 자질들의 계층 문제는 중세 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세 국어에 계층화된 자질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현대 국어에도 동일한 방법론이 적용되든지, 또는 그러한 자질 계층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화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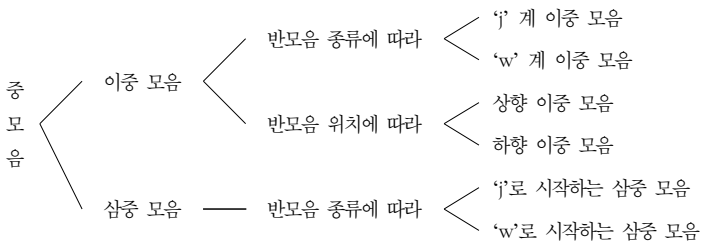
43) 이것은 마치 ‘[유기성]’ 자질이 공명음의 구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명음들에 대해 ‘[-유기성]’으로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 2. 중모음 체계

중모음은 둘 이상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체계 역시 단모음 체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단모음 체계에 비해 중모음 체계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 자체가 심각하게 고민된 바 없다. 중모음에 반모음이 들어 있을 경우 반모음의 종류 또는 위치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음절 주음과 부음의 순서를 기반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상의 분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모음 체계란 실제로는 중모음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순히 분류한 것 이상이 아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중세 국어의 중모음 체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중세 국어의 중모음 목록은 4장에서 살핀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모음의 분류 방식만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17)



(17)에서 보듯 중세 국어 이중 모음과 삼중 모음의 분류 방식은 차이가 난다. 이중 모음의 경우 반모음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삼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의한 분류만 가능하다.<sup>44)</sup> 이것은 중세 국어 삼중 모음의 특성과 관련된다. 중세 국어의 삼중 모음은 모두 ‘반모음+단모음+반모음’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마지막 반모음의 종류도 ‘j’로 동일하

44) 그마저도 삼중 모음의 제일 앞에 오는 반모음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래서 ‘상향’이나 ‘하향’과 같은 개념을 활용할 수 없으며 단순히 어떤 반모음으로 시작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sup>45)</sup>

## VI. 중세 국어 모음의 음운 현상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들은 모음 조화와 같이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는 현상도 있고, 이견보다는 해명해야 할 점이 남아 있는 현상도 있다.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 밝히거나 한 번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또한 특별한 쟁점이나 고려 사항을 찾기 어려운 반모음 첨가와 같은 현상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 1. 대치

#### 1) 모음 조화

모음 조화는 한 단어 내에서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모음들이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모음 조화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음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46)</sup> 여기서는 음운 현

---

45) 삼중 모음에 대해서도 간혹 상향 삼중 모음과 하향 삼중 모음을 나누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상향 삼중 모음은 뒤로 갈수록 개구도(또는 공명도)가 커지고 하향 삼중 모음은 그 반대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삼중 모음은 단모음이 중간에 있고 양 끝으로 반모음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구도(또는 공명도)가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중간에 놓이는 단모음을 봉우리로 하여 개구도의 크기가 꺾이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상향 삼중 모음과 하향 삼중 모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6) 모음 조화의 일차적인 적용 단위는 한 형태소의 내부이지만 실제로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서의 모음 조화가 더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음 조화의 경우 정적(靜的)이라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음운 현상으로서의 모음 조화는 동적(動的)이라서 그 존재가 쉽게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으로서의 모음 조화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 (18) ㄱ. 마가, 마가도 (막+아X) ⇔ 머거, 머거도 (머+어X)  
 ㄴ. 마고미, 마고미니 (막+오X) ⇔ 머구미, 머구미니 (머+우X)  
 ㄷ. 마ㄱ며, 마ㄱ니 (막+으X) ⇔ 머그며, 머그니 (머+으X)

(18)에서 보듯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현대 국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모음들에서 나타난다. ‘아’와 ‘어’의 교체는 물론이고 ‘오’와 ‘우’, ‘으’와 ‘으’의 교체도 모음 조화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음 조화의 적용이 훨씬 더 엄격한 편이어서 예외가 비교적 적다.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예외에 대해서는 문헌의 성격, 예외의 방향, 그 의의 등 여러 측면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다.<sup>47)</sup>

모음 조화는 모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모음 조화는 모음 체계와 결부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모음 조화에서 동일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의 음운론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sup>48)</sup> 다른 하나는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는 서로 합치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sup>49)</sup>

우선 모음 조화의 속성상 모음 조화에서 동일한 부류로 기능하는 모음들은 공통점을 지녀야 한다.<sup>50)</sup> 이러한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모음 조화의 성격이 결정된다.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본질에 대해서는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혀의 움츠림, 혀뿌리의 움직임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

47) 모음 조화의 예외에 대해서는 김완진(1986), 이근규(1986), 한영균(199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한영균(1994)에서는 문헌과 환경을 구분하여 매우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48) 모음 조화에서 동일한 부류로 기능하는 모음들을 흔히 조화군(harmony class)이라고 부른다.

49)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핵심적 사항만 검토하기로 한다.

50) 물론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의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음 체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의 불합치와 결부된다. 또한 이런 경우 모음 조화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이루어졌다.<sup>51)</sup> ‘혀의 높낮이’는 모음 조화가 혀의 높이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고모음 계열과 저모음 계열 사이에서 작용하는 수직적 조화가 된다. ‘혀의 전후 위치’는 모음 조화가 혀의 전후 위치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며 여기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중설 모음 계열과 후설 모음 계열 사이에서 작용하는 수평적 조화가 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모음 추이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러한 모음 추이가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던 모음 조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찾을 수 있다. 혀의 움츠림은 훈민정음에 나오는 ‘설축’의 개념을 문면 그대로 수용했을 때 성립하는 모음 조화의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혀뿌리의 움직임은 ‘[ATR]’ 또는 ‘[RTR]’과 같은 자질이 중세 국어 모음 조화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혀의 움츠림이나 혀뿌리의 움직임은 중시할 경우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사선적 조화에 가까운 모습이 된다.

다음으로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의 합치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앞서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논의들은 모두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의 합치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은 모음 체계 내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이전 시기의 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할 뿐 중세 국어 시기의 모음 체계와는 합치되지 않으므로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의 공통점을 당시의 모음 체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모음 조화의 경우 모음 추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혀의 전후 위치에서 대립되는 두 부류 사이에서 작용을 했는데, 모음 추이가 일어난 후 모음들의 대립 관계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모음 조화는 예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 사이의 합치가 깨졌다는 것이다.<sup>52)</sup>

이 외에 심각한 쟁점이 된 적은 없지만 모음 조화가 중세 국어 이전 시

51) 이 문제는 곧 ‘설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52)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논의로 이기문(1977, 1979)를 들 수 있다. 김주원(1992)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에서 살펴기도 했다.

기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혼란상, 향가 자료, 경상도 방언 등을 근거로 하여 고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다. 중세 국어 이전 시기에 모음 조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예외를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고대 국어에 모음 조화가 없었다면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예외는 모음 조화의 확산 과정에서 미처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고대 국어의 모음 조화가 존재했다면 중세 국어 모음 조화의 예외는 음운 현상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 반모음화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 반모음화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다.

- (19) ㄱ. 티+어도→터도, 꾸미+우물→꾸뭇물  
 ㄴ. 오+아→와, 머물우+어→머물워, 싸호+아→싸화  
 ㄷ. 바+이라→배라, 부터+어→부테

(19)는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로 바뀌는 (19ㄱ, ㄷ)과 ‘w’로 바뀌는 (19ㄴ)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단모음의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단모음 앞에 오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19ㄱ, ㄴ)과 다른 단모음 뒤에 오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19ㄷ)으로 나눌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다른 단모음 뒤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19ㄷ)이 특이한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하향 이중 모음이 존재했으므로 (19ㄷ)과 같은 반모음화도 가능했다.

반모음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반모음화의 수의적 적용과 관련된다. 동일한 반모음화라고 하더라도 (19ㄱ)이나 (19ㄷ)과 같이 ‘j’로 바뀌는 반모음화는 비교적 적용이 활발하게 되지만 (19ㄴ)과 같이 ‘w’로 바뀌는 반모음화는 그렇지 않다. ‘w’로의 반모음화는 음절 내에 초성이 없거나 또한 ‘ㅇ, ㅎ’과 같은 후음이 초성에 놓이

는 경우의 모음에 주로 적용된다. 그나마 ‘ㅎ’ 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수의적 적용 양상 또는 특정한 자음 뒤에서만 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해명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sup>53)</sup>

다른 하나는 반모음화와 보상적 장모음화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장단 대신 성조가 운소로 작용하므로 보상적 장모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모음화가 적용될 때 상성으로의 성조 축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19c)의 ‘부테’는 ‘부터[LI]’와 ‘이[HE]’의 성조를 고려하면 평성과 거성이 결합하여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거성(또는 상성)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로 줄어들면 상성으로 실현된다. 상성과 평성 사이의 성조 변동은 현대 국어의 음장 변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모음화에서 보이는 상성으로의 성조 축약은 현대 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와 관련될 것이 예상된다.<sup>54)</sup>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중세 국어 반모음화에서 나타나는 상성화는 현대 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화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보상적 장모음화는 중세 국어 시기에 상성으로 실현되는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현대 국어의 반모음화에서 보이는 보상적 장모음화는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sup>55)</sup>

53) 이 문제는 ‘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체계와 관련될 수도 있고 ‘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포함된 음절 형태의 제약과 관련될 수도 있다.

54) 중세 국어 시기에 상성이 아니었던 것이 상성으로 바뀌는 것은 현대 국어의 장모음화 현상에 대응하고, 상성이 평성으로 바뀌는 것은 현대 국어의 단모음화(短母音化) 현상에 대응한다.

55) 이 문제는 일찍이 한영균(1988)에서 다룬 바 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이진호(2011)에서 다른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추를 비롯하여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 2. 탈락

### 1) ‘으/으’의 탈락

이 현상은 현대 국어의 ‘으’ 탈락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와 비교해 탈락하는 모음이 ‘으’에 국한되지 않고 ‘으’도 포함된다. ‘으/으’의 탈락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구분된다.

- (20) ㄱ. 측+어→차, 쓰+어→써, 크+음→꿈  
 ㄴ. 가+으면→가면, 씨+으니→씨니, 두+으나→두나, 울+으며→울며  
 ㄷ. 울리+으시고→우르시고[RHLH], 맥니+으시니→맥기시니[LLHHL]

(20ㄱ)은 다른 단모음의 앞에 오는 ‘으/으’가 탈락하는 경우이고 (20ㄴ)은 다른 단모음 또는 유음이나 반모음의 뒤에 오는 ‘으/으’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20ㄱ, ㄴ)은 공통적으로 탈락의 환경에 단모음이 포함된다. 그러나 (20ㄴ)은 (20ㄱ)과 달리 자음인 ‘ㄹ’과 반모음 ‘j’가 더 포함된다.

‘으/으’ 탈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ㄴ)이다. 소위 매개 모음 어미의 두음인 ‘으/으’가 환경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은 첨가설과 탈락설이 맞서고 있다.<sup>56)</sup> 첨가설은 기본형에 ‘으/으’가 없는데 소리를 고루는 기능을 하기 위해 ‘으/으’가 첨가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탈락설은 기본형에 ‘으/으’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음 뒤에서 ‘으/으’가 탈락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물론 첨가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탈락설이 나왔으므로 탈락설이 좀 더 우세하기는 하다.

그런데 (20)의 경우에는 몇 가지 해명해야 할 점들이 더 존재한다. 우선 이 현상의 성격이 문제이다. 현대 국어와 같이 ‘으’만 탈락할 때에는 ‘으’가 고모음이므로 음운론적 강도가 낮은 고모음이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탈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는 탈락의 대상에 고모음이 아닌

56) 첨가설이나 탈락설 이외에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여 ‘으/으’의 유무를 기술하는 방안도 존재하기는 한다.



‘으’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론적 강도에 근거한 설명은 성립되기 어렵다.<sup>57)</sup> 게다가 (20ㄴ)의 경우 ‘으/으’가 ‘ㄹ’이나 반모음 뒤에서도 탈락하는데 이것은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음이 탈락했다는 설명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sup>58)</sup>

또한 (20ㄷ)에서 보듯 선어말 어미 ‘-시’ 앞의 ‘으/으’는 일반적인 매개 모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도 해명이 필요하다. ‘-시’ 앞의 ‘으/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매개 모음과 구별된다. 우선 ‘우르시고(울+으시고)’에서 보듯 ‘ㄹ’ 뒤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또한 ‘우르시고’의 어간 성조가 상성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동적 상성 어간을 평성으로 변동시키지도 않는다.<sup>59)</sup> 마지막으로 ‘-막’과 같은 평성 어간 뒤에서 그 자신이 거성으로 실현되지 않는다.<sup>60)</sup>

이러한 특수성에 대해 ‘-시’의 기원이 용언 어간 ‘이시’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증명의 문제가 남을 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예외성을 모두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시’가 ‘이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공시적 기술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중세 국어의 공시적 기술에서 어미의 기저형을 ‘-이시’로 설정할 수 없는 한 ‘-시’ 앞에 오는 ‘으/으’의 특수성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풀려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

57) 김종규(2000)과 같이 ‘으’를 음성학적으로는 고모음이 아니지만 음운론적으로는 고모음이라고 분석하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고모음이 탈락한다는 설명이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의 동기는 음성학적 성격을 지니므로 ‘으’가 음성학적으로 고모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고모음이라는 음성적 이유 때문에 탈락한다는 설명은 유지할 수 없다.

58) 이것은 현대 국어의 ‘으’ 탈락도 마찬가지이다. ‘으’ 탈락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지적한다.

59) 중세 국어의 1음절 상성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평성으로 변동되는 유동적 상성 어간과 원래의 상성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고정적 상성 어간으로 나뉜다. 유동적 상성 어간에 속하는 ‘-담’의 경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다매[LD], 다ㅁ매[LDH]’와 같이 어간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ㅁ샤미[RHLH]’와 같이 ‘-시’ 앞의 ‘으’ 앞에서는 상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양상이 (20ㄷ)의 ‘우르시고’에서도 나타난다.

60) ‘-늑’나 ‘-거’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문법 형태소의 첫 음절은 그 앞에 거성(또는 상성)이 오지 않을 경우 거성으로 실현된다.

는 것이다. 공시 음운론의 틀에서는 ‘-사’의 경우만이라도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으/으’가 첨가된다고 기술하는 방안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61)</sup>

## 2) 동일 모음 탈락

현대 국어의 동일 모음 탈락은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중세 국어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도 없지 않다.

- (21) ㄱ. 가+아-가, 놀라+아-놀라, 서+어서-서서  
 ㄴ. 가+아-가아, 놀라+아-놀라아, 서+어서-서어서

동일 모음 탈락은 『훈민정음』에도 그 예가 등장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합자해」에 나오는 ‘혓(引)’은 어간 ‘혓-’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 탈락이 적용된 예이다.<sup>62)</sup> 다만 (21ㄴ)에서 보듯 이 현상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1) ‘-사’ 앞의 ‘으/으’가 다른 환경에서의 ‘으/으’와 달리 첨가된다고 보면 적어도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예외성은 공시적 문법 틀 내에서 기술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으/으’의 유무라는 표면적 동질성을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탈락과 첨가라는 두 가지 상이한 음운 변동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 즉 (20ㄴ)은 탈락, (20ㄷ)은 첨가로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62) ‘혓’은 그 형태만 보면 용언 어간으로 볼 수도 있고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 탈락이 적용된 활용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용언들은 ‘괴여, 괴어, 소다, 쏘다’ 등과 같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기 때문에 ‘혓’도 용언 어간만 제시했다기보다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더욱이 ‘혓’의 성조가 거성으로 표시되었다는 점도 이것이 활용형을 말해 준다. ‘혓’이 용언 어간만 표시한 것이라면 ‘혓-’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그 성조가 평성(L) 또는 거성(H)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확정하여 표시할 수 없다. 어미 ‘-어’ 앞에서 어간 ‘혓-’은 거성으로 실현되며 어미도 거성이 되므로 여기에 동일 모음 탈락이 적용된 ‘혓’ 역시 거성으로 실현된다. 이런 점에서 『훈민정음』에 나오는 ‘혓’은 용언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이 현상이 적용되었다.

- (22) ㄱ. 보+옴→봘[R], 두+우덕→두더[RDE]  
 ㄴ. 가+옴→감[R], 서+옴이→서미[RDE]

(22ㄱ)은 ‘오, 우’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의 두음 ‘오, 우’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어미의 두음 ‘오, 우’가 없다면 (22ㄱ)의 활용형에서 상성이 출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22ㄱ)은 동일 모음 탈락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특히 (22ㄱ)은 (21)과는 달리 필수적인 적용 양상을 보인다.

(22ㄴ)은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다르므로 일견 동일 모음 탈락과 다른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반드시 탈락하는 것을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어미의 이형태 중 하나를 ‘오, 우’ 대신 ‘아, 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21ㄱ)과 동일한 성격의 변동이 적용되었다고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즉 (22ㄴ)의 ‘감’은 ‘가+암’, ‘서미’는 ‘서+엄이’에 동일 모음 탈락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sup>64)</sup>

(21)과 (22)를 공시적 기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해명이 필요하다. 성격이 비슷하다면 같은 현상으로 묶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개의 현상으로 분리해야 한다. 만약 (22ㄴ)에 나오는 어미의 이형태를 ‘오/우’가 아닌 ‘아/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21)과 (22)를 하나의 동일 모음 탈락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21)과 달리 (22)의 모음 탈락은 필수적인 적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 (22ㄴ)은 인접한 두 모음이 동

63) ‘보-, 두-’ 역시 앞서 언급한 ‘혀-’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그 성조 실현이 다르다.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며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 ‘오/우’는 거성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의 적용으로 인해 평성과 거성이 하나로 합쳐지면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나게 된다.

64) 그러나 (21)과 달리 (22ㄴ)에서는 동일 모음 탈락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22ㄴ)의 ‘감, 서미’가 ‘가암, 서어미’로 나타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현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별개의 현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음운 현상으로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필수적 적용 여부를 중시한다면 (21)과 (22)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또한 (22ㄱ)과 (22ㄴ)의 통합 여부는 다른 기준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21), (22ㄱ), (22ㄴ)이라는 세 개의 음운 현상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다. 만약 필수적 적용 여부를 무시한다면 (21)과 (22ㄴ)을 하나로 묶고 (22ㄱ)을 별개의 규칙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21, 22ㄴ)은 ‘ㅏ, ㅑ’ 뒤에 동일한 모음 또는 설측에 있어 동일 계열에 속하는 모음이 올 때 탈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sup>65)</sup> 반면 (22ㄱ)은 ‘ㄱ, ㄷ’ 뒤에 동일한 모음 ‘ㅏ, ㅑ’가 올 때에만 탈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적어도 중세 국어의 동일 모음 탈락에 대한 공식적 기술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때 완벽해진다.

## VII. 맺음말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모음에 대한 연구에 있어 어떠한 쟁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들이 있었고 아직 남은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훈민정음』의 서술 내용과 수용 태도, 중세 국어 모음의 음가와 체계, 모음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 등 모음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모두 논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중세 국어 모음론을 연구사적으로 살핀 논의는 적지 않았지만 모음 체계와 음운 현상까지 아우른 종합적 고찰은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들 수 있을 듯하다.

중세 국어의 모음론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

65) ‘설측에 있어 동일 계열에 속하는 모음이 올 때’라는 조건은 (22ㄴ)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둔다면 (22ㄴ)에 나오는 어미의 이형태가 굳이 ‘아/어’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고 ‘오/우’로 시작한다고 보아도 모음이 탈락할 수 있는 것이다.

게 파악하여 설명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음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시기의 언어에 대한 연구인 만큼 모든 의문점을 말끔히 해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끊임없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이미 본론의 논의를 통해 중세 국어 모음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정리가 이루어진 만큼 여기서는 중세 국어 모음론과 관련하여 향후 좀 더 필요한 논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내용을 덧붙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 방면의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훈민정음』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내적, 외적 검토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훈민정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텍스트 내적으로 규명해야 할 점들도 있지만 외부의 자료를 통해 새로이 음미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간과했던 측면을 찾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여전히 좋은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모음론 자체에 대한 공시 음운론적 기술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모음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대 국어의 공시 음운론적 기술 태도에 비하면 중세 국어의 공시 음운론적 기술은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음운 현상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이 더 부각된다. 대체로 전형적인 사례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는데, 좀 더 치밀하면서도 공시적 기술 태도에 합당한 방식의 서술이 필요하다.<sup>66)</sup> 공시적으로 정밀한 기술은 역사적 연구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세 국어의 공시론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기술이 필요하다.

66) 중세 국어의 특성상 그 서술 방식에 공시론과 통시론이 조금씩 뒤섞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78), “중국어자음과의 대응으로 본 국어모음체계”, 『국어학』 7, 국어학회, 1~21.
-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 강신항(1992), “훈민정음 중성 체계와 한자음”, 『춘강유재영박사 화갑기념논총』, 이회문화사, 23~40.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차자표기 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고성연(2010), “중세국어 모음체계의 대립 위계와 그 변화”, 『언어학』 56, 한국언어학회, 87~118.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
- 권인한(1994),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재선(1993),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중세 음운론』, 우골담.
- 김남미(2004), “15세기 국어의 중모음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김동소(2002), 『중세 한국어 개설』, 대구가톨릭대 출판부.
- 김무림(1989), “중국어 모음체계 일고”, 『어문논집』 28,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247~262.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식(1993), “「훈민정음」의 음운체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김방한(1964),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 중세국어모음체계의 재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도”, 『동아문화』 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9~80.
- 김병욱(1983), “국어 음운체계 변천에 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 김석득(1971), “훈민정음 해례의 언어학적 분석: 이원론적인 변별적 자질론 및 언어학적 이해”,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291~310.
-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실태 연구 1: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55.
-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41~68.
- 김성렬(2000), 『중세국어 모음연구』, 국학자료원.
- 김소영(2009), “이중모음 /의/의 통시적 변화 연구”, 『국어연구』 213,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영선(2003), “중세국어의 몇 가지 음운 현상과 모음 체계”, 『언어과학』 10권 1호, 언어과학회, 1~26.
- 김영송(1976), “훈민정음의 홀소리 체계: 특히 舌縮·聲深·口麤에 대하여”, 『문리과대학 논문집』 15, 부산대, 23~54.
- 김영송(1987), “한국어 /어/ 음소의 연구”, 『인문논총』 3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1~36.
- 김영송(1988), “훈민정음의 모음체계”,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81~112.
- 김영진(1991), “모음체계”,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5~67.
- 김완진(1963), “국어 모음 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4~99.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 논문집』 4, 대한민국학술원, 49~66.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권 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127~139.
- 김완진(1986),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22.
- 김용람(1994), “설근수축과 15세기 국어 모음조화”,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 김유범(2015), “훈민정음의 문자론적 연구, 그 성과와 과제”,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립한글박물관, 발표 자료로 별도 첨부.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종규(2000), “Feature Combination and Discrepancy in Vowel System - Middle Korean Vowel Harmony and Vowel System Revisited”, 『국어학』 36, 국어학회, 133~159.
- 김주원(1988), “모음조화와 설축”, 『언어학』 9·10, 한국언어학회, 29~43.
- 김주원(1992), “모음 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국어학회, 33~56.
- 김주필(2003),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현상과 모음체계”, 『어문연구』 3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0.
- 김차균(1984), “15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I)”, 『언어』 5, 충남대 어학연구소, 1~38.
- 김차균(1985), “훈민정음 해례의 모음 체계”, 『선오당김형기선생팔절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139~153.
- 김 현(2007), “비원순모음화와 ‘ㄱ’의 저설화”,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143~165.

- 김 현(2015), “중세 국어 ‘ㄱ’의 음운론”, 『어문연구』 4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3.
- 김혜영(1992), “훈민정음의 중성체계와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 『어문논집』 5, 경남대학교, 235~253.
- 남광우(1960), 『국어학논문집』, 일조각.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리의도(1984), “‘훈민정음’의 중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151~172.
- 문양수(1974), “Phonological Problems of Korean”, 『학술원논문집』 13, 대한민국학술원, 313~333.
- 박종희(1983), 『국어 음운론 연구』, 원광대 출판국.
- 박종희·설경석(1999), “훈민정음의 중성체계 연구: 자질 [ATR]를 축으로 하여”, 『교과교육연구』 1, 원광대 교과교육연구소, 275~314.
- 박창원(1986),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313~343.
- 박창원(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 모음”, 『경남어문논집』 1, 경남대, 63~88.
- 박혜정(2002), “중세국어모음연구: 음성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2002), “국어음운론 반세기”, 『국어국문학회50년』, 태학사, 289~316.
- 백두현(1988), “‘으,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 국어학회, 177~202.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서정범(1982), 『음운의 국어사적 연구』, 집문당.
- 송기중(1991), “이론적 측면에서 본 15세기 국어의 /·/음, 모음체계, 모음조화”, 『국어학』 21, 국어학회, 79~101.
- 송기중(2006), “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83~110.
- 송기중(2014), “훈민정음 해례의 음소-음성학”, 『한국어사 연구』 1, 국어사연구회, 59~93.
- 송철의(1987), “십오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국어학회, 325~360.



- 송철의(1992),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태학사.
- 심의린(1949), 『국어교육의 기본인 음성언어의 교육』, 해동문화사.
- 안대현(2000), “15세기 국어의 홀소리체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1959), “십오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서울대 국어연구회.
- 안 확(1923), 『수정 조선문법』, 회동서관.
- 오정란(2000), “중세 국어 모음체계의 대립과 조정양상”,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187~212.
- 오종갑(1988),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 우민섭(1998),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 『어문연구』 9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8~117.
- 유창균(1963), “훈민정음 중성체계 구성의 근거”, 『어문학』 10, 한국어문학회, 24~43.
- 이관수(1984),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우운 박병채박사 환려키념논총』,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335~349.
- 이근규(1986),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창학사.
- 이기문(1968),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377~389.
- 이기문(1977), 『(재판)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단국대 동양학연구회, 23~36.
- 이동석(1996), “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병운(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세종출판사.
- 이상억(1986), “모음조화 및 이중모음”, 『국어학신연구』, 한신문화사, 85~98.
- 이승녕(1940), “‘·음고’”,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1~106.
- 이승녕(1949ㄱ), “모음조화연구”,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1~109.
- 이승녕(1949ㄴ), “‘ㄱ, ㅋ, ㆁ’의 음가변이론”, 『한글』 106, 한글학회, 25~35.
- 이승녕(1954ㄱ), 『국어음운론연구 제일집 ‘·음고’』, 을유문화사.
- 이승녕(1954ㄴ), “십오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연세대 동방학연구회, 331~432.

- 이승녕(1960), “15세기의 ‘어’ 음가에 대하여”, 『한글』 126, 한글학회, 451~460.
- 이진호(2011),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60, 국어학회, 1~24.
- 이진호(2013), “‘으’의 음가론”,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133~164.
- 이진호(2015), “중세 국어의 성조 축약 양상과 제약”, 『국어학』 75, 국어학회, 59~83.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 이현희(1991), “훈민정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615~631.
- 임용기(2002),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성체계 분석의 근거에 관한 몇 가지”, 『애산학보』 27, 애산학회, 65~89.
-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16~156.
- 임용기(2010),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과 훈민정음”, 『국어학』 57, 국어학회, 75~106.
- 장영길(1994), “15세기 국어 모음 체계 연구: 모음추이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장향실(2000), “중세국어 모음 ‘·’의 음가에 대한 연구”,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473~489.
- 정 광(2002), “훈민정음 중성자의 음운대립: 한글 창제의 구조언어학적 이해를 위하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31~46.
- 정 광(2009), “훈민정음의 중성과 파스와 문자의 모음자”, 『국어학』 56, 국어학회, 221~247.
-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으’의 음운사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학』 43, 국어학회, 407~428.
- 정연찬(1989), “십오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그것에 딸린 몇 가지 문제”, 『국어학』 18, 국어학회, 3~41.
- 정인호(2015), “현대국어 모음 ‘아’의 음가 고찰”,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203~225.
- 정철주(1993), “15세기 현실한자음과 음운체계”, 『계명어문학』 8, 계명어문학회, 37~65.
- 조경하(1999),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9),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 연구: 구조언어학이론과 생성음운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121~144.
- 최범훈(1990), 『한국어발달사』, 경설출판사.
- 최병선(1998), 『중세 국어의 음절과 모음체계』, 박이정.
- 최세화(1976), 『15세기국어의 중모음 연구』, 아세아문화사.
- 최윤현(1990), “국어의 하강 이중 모음에 대한 통시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 최태영(1980),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및 매개모음”, 『연암 현평효 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629~650.
- 최태영(1991), “모음조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68~76.
- 최현배(1941), 『한글갈-정음학-』, 정음사.
- 최현배(1959), ““·”자의 소리값 상고: 배달말의 소리뒀(음운) 연구”, 『동방학지』 4,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
- 최희수(1992), “15세기 조선어 모음체계에 대하여”, 『국어학연구백년사 II: 의미론·국어사』, 일조각, 599~621.
-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 국문과, 1~26.
- 한영균(1990), “모음조화의 붕괴와 ‘으’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국어학회, 113~136.
- 한영균(1994),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영균(1997), “모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457~489.
- 허웅(1952), “‘에 애 외 익’의 음가”, 『국어국문학』 1, 국어국문학회, 5~8.
- 허웅(1965), 『(개고신판)국어음운학』, 정음사.
- 가도와키(門脇誠一)(1982), “中期韓國語における母音調和の亂れについて一特に語基母音ㄱ/ㄷを中心に”, 『朝鮮學報』 102, 朝鮮學會, 1~30.
- 가도와키(門脇誠一)(1986), “再び中期朝鮮語における母音調和の亂れについて一特に第3語基母音a/əを中心に”, 『朝鮮學報』 119·120, 朝鮮學會, 1~11.
- 고노(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一‘缺’語考』, 東都書籍; 이진호 역(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 ‘마시개(缺)’ 고찰』, 전남대 출판부.
- 고노(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한자음의 연구』, 역락.

- 오구라(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오구라(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이진호 역(2009),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 출판부.
- 우메다(梅田博之)(1983), 『한국어의 음성학적 연구: 일본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 이즈미·라종호(泉井久之助·羅鐘浩)(1968), “中期朝鮮語の母音調和と母音交替”, 『言語研究』 52, 日本言語學會, 1~32.
- 이토(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本文篇』, 汲古書院; 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역락.
- 하야타(早田輝洋)(1975), “A Note on Vowel Harmony in Middle Korean”, 『言語研究』 68, 日本言語學會, 104~118.
- 햏토리(服部四郎)(1974), “중세한국어의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학술원창립 20주년기념학술강연논문집』, 대한민국학술원, 201~219.
- 후쿠이(福井玲)(2013), 『韓国語音韻史の探究』, 三省堂.
- 고성연(Ko, S.)(2012), “Tongue Root Harmony and Vowel Contrast in Northeast Asian Languages”, Doctral Dissertation of Cornell University.
- 김영기(Kim, R.-Y.)(2008),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in 15th Century Korean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SCRIPTA*, 223~36.
- 김진우(Kim, C.-W.)(1978), “Diagonal vowel harmony?”, 『국어학』 7, 국어학회, 23~45.